

창세기(주석)

고든 웬햄(Gordon J. Wenham), 영국의 구약학자이자 작가

일곱 날과 하나님의 활동 (P) (1:1-2:3)

▶ 종합

구절별 해석

1:1-5

- 이 구절은 해석하기 쉽지 않다.
- NRSV (는 RSV 등 다수의 현대 번역본과 다르게 번역)
 - [창1:1]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
 - 맨 처음 창조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이해
 - '무'에서 "천지" 곧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.
 - '무로부터의(ex nibilo) 창조'
 - 이어서 2절 이후의 옛세 동안의 창조활동
 - [창1:2]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,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,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.
- 현대의 많은 학자는
 - 1절을 1:2~2:3의 '표제'로 이해
 - 2절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전에 이미 물질계가 존재했음을 전제하기에
 - '무로부터의 창조'를 가르키지 않음
 - 1절을 2절의 종속절로 번역하는 NRSV를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.

1:2

- "혼돈하고 공허하며"는 히브리어 두 단어를 번역한 것
 - (참고 RSV, "without from and void")
 - 어원론의 관점에서 병행 본문인 렘 2:23과 적절한 번역임을 암시한다
 - "생산하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"
 - 셋째 날과 여섯째 날 하나님의 행위, 즉
 - 식물과 동물·인간을 창조하신 행위와 대조를 이룸
 - 이런 전후 대조는
 - "흑암이 깊음위에 있고"에서도 계속됨
 - 다시말해
 - 하나님이 "빛이 있으라"(첫째 날)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
 - 지구 전체는 어두웠고
 - 셋째 날에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시기 전까지는
 - 지구 전체가 물 속에 있었다
- "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"
 - "하나님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"
 - 번역본 사이의 비교
 - RSV "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,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; and the Spirit of God was moving over the face of the waters."
 - NRSV "the earth was a formless void and darkness covered the face of the deep, while a wind from God swept over the face of the waters."
 - 차이점
 - 1. RSV는 "Spirit of God"(하나님의 영)이라고 표현한 반면, NRSV는 "wind from God"(하나님으로부터의 바람)이라고 번역
 - NRSV는 '루아흐(רוח)'를 "영"으로 번역하지 않고 "바람"으로 번역 (역주):
 - 구약성경에서 루아흐는 총 389회 사용되며,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임(역주):
 - 자연현상으로서의 바람
 - 생명의 호흡
 - 사람의 정신이나 마음
 - 하나님의 영 (성령)
 - 2. RSV는 "moving over"(움직이고 있었다)라고 표현했지만, NRSV는 "swept over"(휩쓸고 있었다)라고 더 역동적으로 묘사
 - "몰아치고 있었다" 등은 과한 번역, 폭풍우라는 개념을 과하게 적용하려고 했던 듯
 - RSV의 번역이 적절해 보임

1:3-5

- 빛과 시간의 창조와 함께 하나님의 활동 주간이 시작됨
 - 빛
 - 신적 존재가 아니라, 종종 하나님의 현존과 관련됨 (출 10:23)
 - [출10:23]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, 제자리를 뚫 수도 없었다.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.
 - 빛의 창조는
 - '이전에 힘을 떨치던 어둠에 제한을 가한다' (1:2)
 - 빛과 어둠, 즉 낮과 밤의 반복 및 한 주간의 순환 주기를 가능하게 한다

1:6-8

- 하늘은 땅 위에 펼쳐진 둥근 지붕으로 묘사되는데
 - 땅 위의 물이 그 위로 덮치지 않도록 막아준다
 - 그 둥근 지붕의 창문이 열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(참고, 창 7:11)
 - [창7:11] 노아가 육백 살 되는 해의 둘째 달, 그 달 열이렛날, 바로 그 날에 땅 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,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,
- 이 네러티브는
 - 하늘을 하나님과 동일시 할 수 없고
 - 심지어 <예누마 엘리시>에서처럼 죽은 신의 시체와도 동일시 할 수 없음을 다시금 강조
 - [참고] 예누마 엘리시 :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중요한 창조 서사시
 - 바빌론의 주신 마르둑이 다른 신들을 제압하고 세계를 창조하는 이야기
 - 바빌로니아의 세계관과 마르둑 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, 종교적 목적을 가진 작품

1:9-13

- 셋째날의 분리와 창조행위에서 작은 정점에 도달
 - "그대로 되니라", "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"가 각각 두 번씩 반복
 - 땅의 식물들이 이 날에 창조
 - 인간의 삶에 꼭 필요

1:14-19

- 인간 삶의 일정한 규칙성을 위해서는, 천체도 절대적으로 필요
 - 천체 창조도 상세하게 설명
 - "징조" "계절" "날" "해"를 이룸
 -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해와 달, 별은 신으로 간주
 - 그러나, 하나님이 '이것들'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밝힘
 - 더구나 해와 달 대신에
 - 큰 광명체(큰 빛), 작은 광명체(작은 빛) 라고 칭함으로
 - 그것들이 태양신 샤마시(Shamash)나 월신 아리흐(Yarih)를 가리킨다는 암시를 피함

1:20-23

- 다섯째 날에 창조한 공기와 바다는
 - 여섯째 날의 '동물'과 '인간' 창조를 예견
 - 이 둘은 똑 같이 '생물'로 묘사(20절)
 - 둘은 창조되었고(bara),
 -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(barek),
 -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받음
 - 생명이 있는 피조물과 무생물을 구별함
 - 하나님의 생명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
 - 생명이 있는 피조물에 분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냄
 -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에는
 - 스스로 재생산 하도록 허용함
 - '복'은 창세기에 가장 자주 나옴
 - '창세기의 핵심 개념'이라 할 수 있음
 - 하나님의 복은 장수, 평화, 풍요, 물질적·영적 성공에서 분명하게 드러남
 - 그것은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핵심이다 (12:1-3)
 - [창12:1-3]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. "너는, 네가 살고 있는 땅과, 네가 난 곳과,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,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.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, 너에게 복을 주어서,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.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.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,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.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."
 - 본래 하나님이
 - 물고기, 새, 동물, 인간을 포함하는 창조 세계 전체에 복을 주고자 하셨음을 암시

1:24-31

-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창조 이야기는 정점에 도달
 - [창1:31]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
 -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정점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선포
 -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
 - 생물들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았다
 - (아트라하시스 서사시)에서처럼 인간이 신들 계획에서 뒤늦은 공리로 생겨난 존재가 아님
 - 신들의 식량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 - 인간
 - <--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량을 제공해 줌 (창세기)
- [창1:26]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...
 - 하나님이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까?
 - 1)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자신의 최고 걸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을 관찰하도록 청하셨다는 것 (가장 그럴듯한 설명)
 - 2) 자기 격려의 복수형 이라는 견해
 - 3) "우리"를 삼위일체적 언급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
 - 창세기 저자의 이해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(고든 웬햄)
 - 하나님의 형상
 - 고대 근동의 '신의 형상'으로의 "왕" - 그들이 신을 대표하여 지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렸다
 - (창세기) 왕만이 아니라
 - "남녀" 모두 모든 인간이,
 -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것
 - 하나님은 항상, 창조 세계의 '행복을 갈망'하시는 분으로 묘사됨
 - 따라서 그분을 대표하는 인간 역시 명백히 그리해야 함 (행복)
 - 구체적 암시는 없으나
 -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인류로 가득 채워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돕는 속성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암시함

2:1-3

- 일곱째 날
 - 언어적 반향으로 1장 서두의 구절들과 연결되어 있어 (2:3과 1:1)
 - 창조 이야기를 매끄럽게 마무리 함
 - 그 이상의 의미
 - 창세기는 하나님의 휴식을 일곱째 날과 연결지음
 -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
 - 거룩해진 날
 - 성경에서 '거룩한 것'으로 불리는 맨 처음 사례
 - 거룩
 -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고 그럼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생명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
- 일곱째 날, 창조 주간에 덧붙여진 날이 아니라
 - 일곱째 날이 복을 받으면서 동시에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
 - 그날이 또 다른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
 -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날임을 의미함
 - 따라서, 이는 창조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
 - 인간의 삶의 양식 또한,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를 일곱째 날 형식을 따라야 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
- 이렇듯 창조 이야기 전체는
 - 안식일 준수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
 - 창조주의 권능과 지혜를 찬미한다